

# 인구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 개요

-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 (계봉오 2020)
  - 연령중심 접근 (Age-centered approach)
  - 특성중심 접근 (Characteristic approach)
  - 장래연령 접근 (Prospective age approach)
- 인구변화와 세대 간 갈등
  - 연령주의 (김주현 2012, 2015)
  - 청년기의 개념
  - 노인 기준연령 변경의 딜레마: 정년연장 vs. 연금수급 개시 연령
  - 노년층의 다양성/이질성: 소준철. 2020. <가난의 문법>

## 인구고령화 지표에 대한 대안적 접근: 장래연령 관점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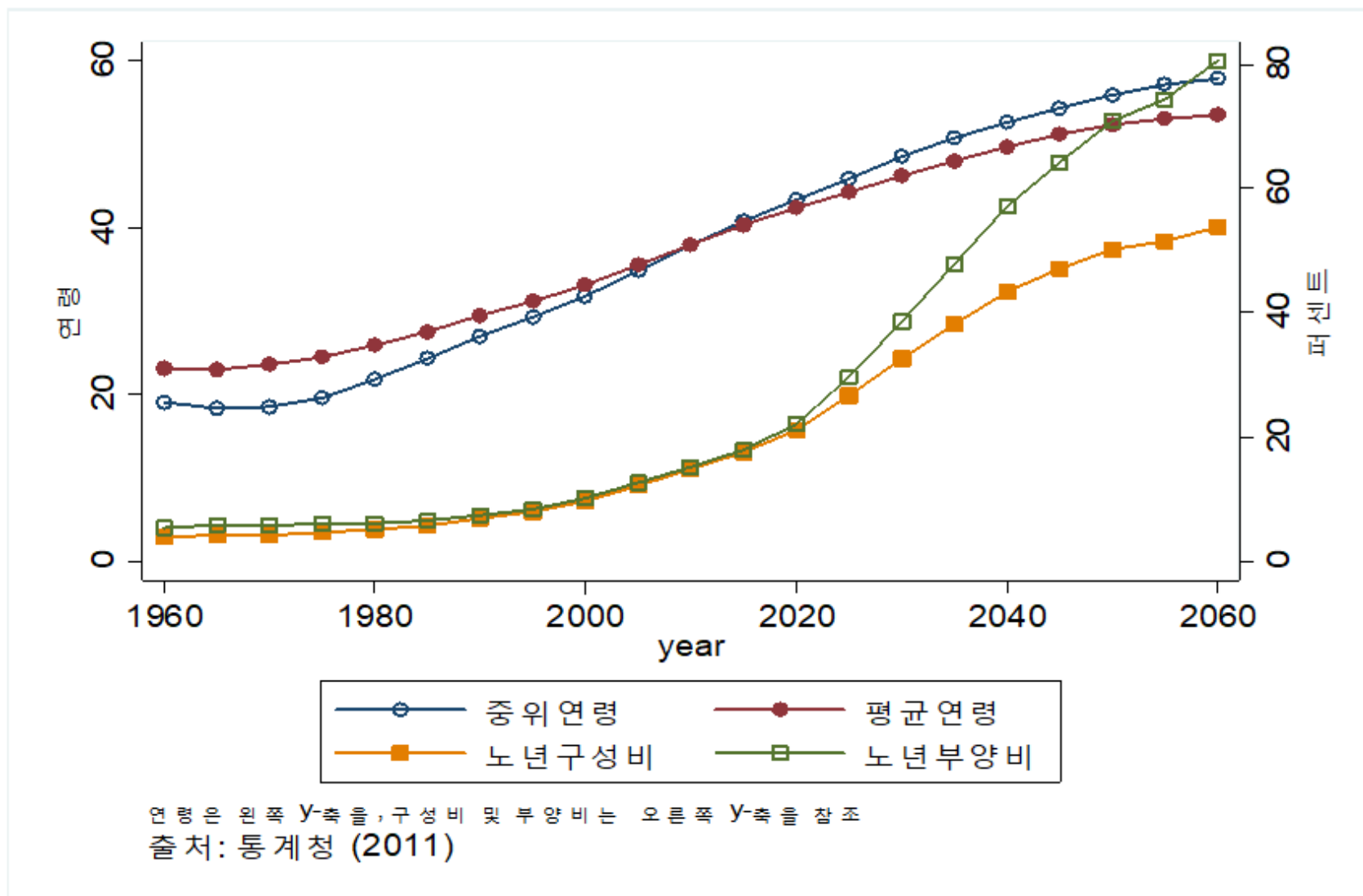
계봉오\*\*

인구고령화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진행되는 현상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논의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우선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특성중심 접근(Characteristics approach)과 장래연령 접근(Prospective age approach)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통계청의 생명표 및 장래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여 기대여명이 15년 인 연령(Remaining Life Expectancy 15 years, RLE 15-), 이들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Proportion RLE 15-), 장래연령 기준 고령인구 부양비(Prospective Old Age Dependency Ratio, POADR), 장래연령 기준 생애과정 비율(Prospective Life Course Ratio), 장래연령 중위연령(Prospective Median Age, PMA) 등의 장래연령에 기초한 대안적 지표를 인구고령화 지표로 추정하고 이를 전통적인 인구고령화 측정치와 비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전통적인 인구고령화 측정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천천히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인구고령화에 대한 논의가 건강수준 향상이 갖는 긍정적 함의를 포괄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적 쟁점을 논의한다.

**핵심단어:** 인구고령화, 장래연령 접근, 특성중심 접근, 노인기준

#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연령중심 접근 (Age-centered approach)



# 특성중심 접근 (Characteristics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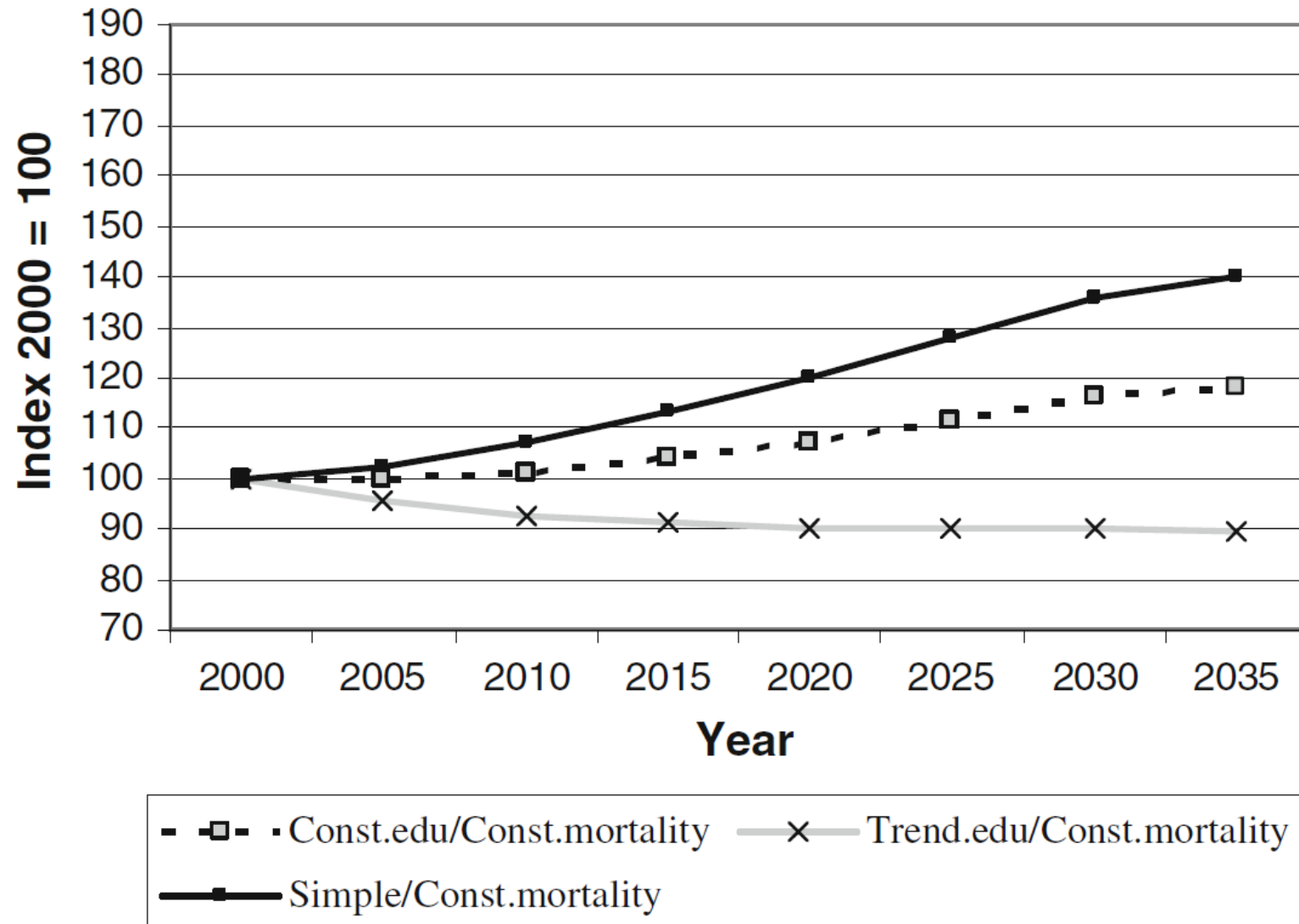
- 인구구조 고령화는 건강, 교육 등 인구의 질적 특성 변화와 함께 진행
- Skirbekk et al. 2011

Table 2. Different measures for the burden of aging

Country/group	Rank (ratio)	
	CADR	OADR
United States of America	1 (0.10)	4 (0.19)
Northern Europe (Denmark, England, Ireland, Sweden)	2 (0.12)	5 (0.24)
India	3 (0.14)	1 (0.07)
Mexico	3 (0.14)	2 (0.09)
China	5 (0.15)	3 (0.12)
Continental Europe (Austria, Belgium, Czech Republic, France, Germany, Netherlands, Poland, Switzerland)	6 (0.18)	6 (0.25)
Southern Europe (Greece, Italy, Spain)	7 (0.32)	7 (0.27)

Source: Population data for the year 2005 from UN (2009) and for England for the year 2005 from th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0); survey data from HRS, SAGE, and SHARE.

# Projected size of elderly, suffering serious illness in Sweden (Batljan et al. 2009)



# 장래연령 접근 (Prospective age approach)

- 장래연령의 개념 (Sanderson and Scherbov 2019, p.37)
  - 연대기적 연령 (chronological age) vs. 장래 연령 (prospective age)

1972	50 Years Lived	Remaining Life Expectancy 29 Years
2014	60 Years Lived	Remaining Life Expectancy 29 Years

1972	50 Years Lived	Remaining Life Expectancy 29 Years
2014	50 Years Lived	Remaining Life Expectancy 38 Years

FIGURE 2.3: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mputation of a prospective age, Japanese women 1972 and 2014.

*Data sour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2017).



# 장래연령에 기반한 대안적 인구고령화 지표

- 장래연령에 따른 노인기준
  - 기대여명 15년 이하 (Remaining life expectancy $\leq$ 15)
- 세대 간 균형
  - 65세 이상 인구비율 (PO) vs. 기대여명 15년 이하 인구 비율 (PPO)
  - 고령인구부양비 (OADR) vs. 장래연령기준 고령인구부양비 (POADR)

## 대안적 지표와 전통적 지표의 비교 (Sanderson and Scherbov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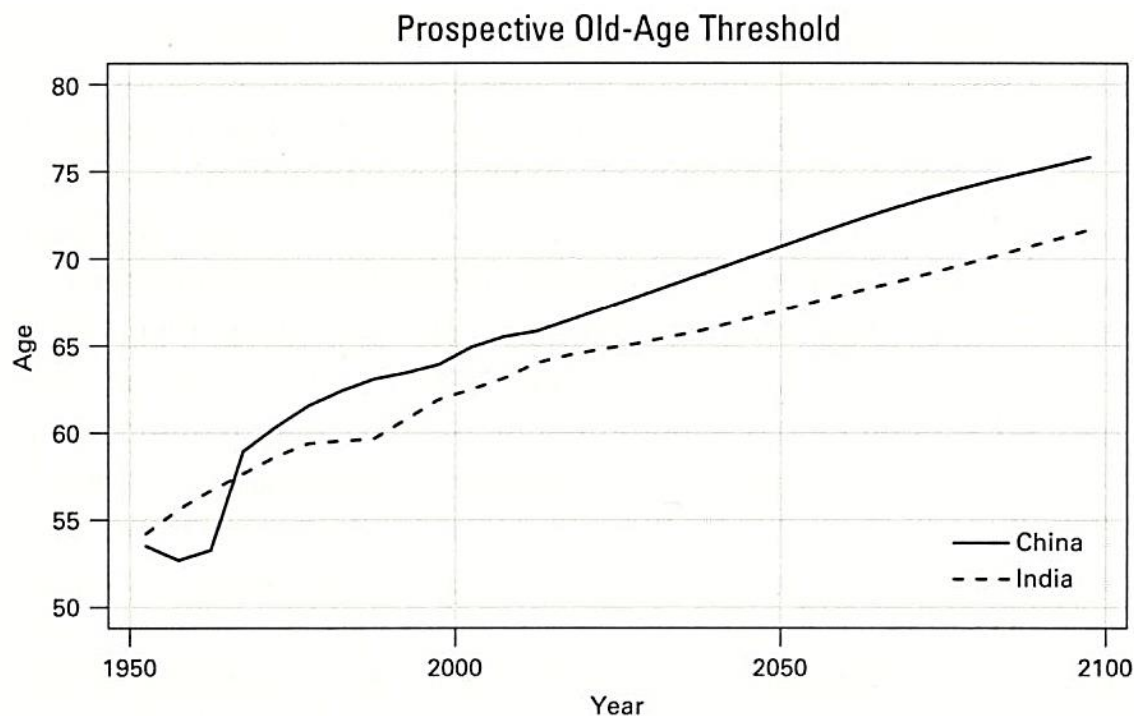


FIGURE 3.2B: Prospective old-age threshold, China and India, 1950–1955 to 2095–2100, both sexes combined.

Data sources: United Nations (2017e); authors' calc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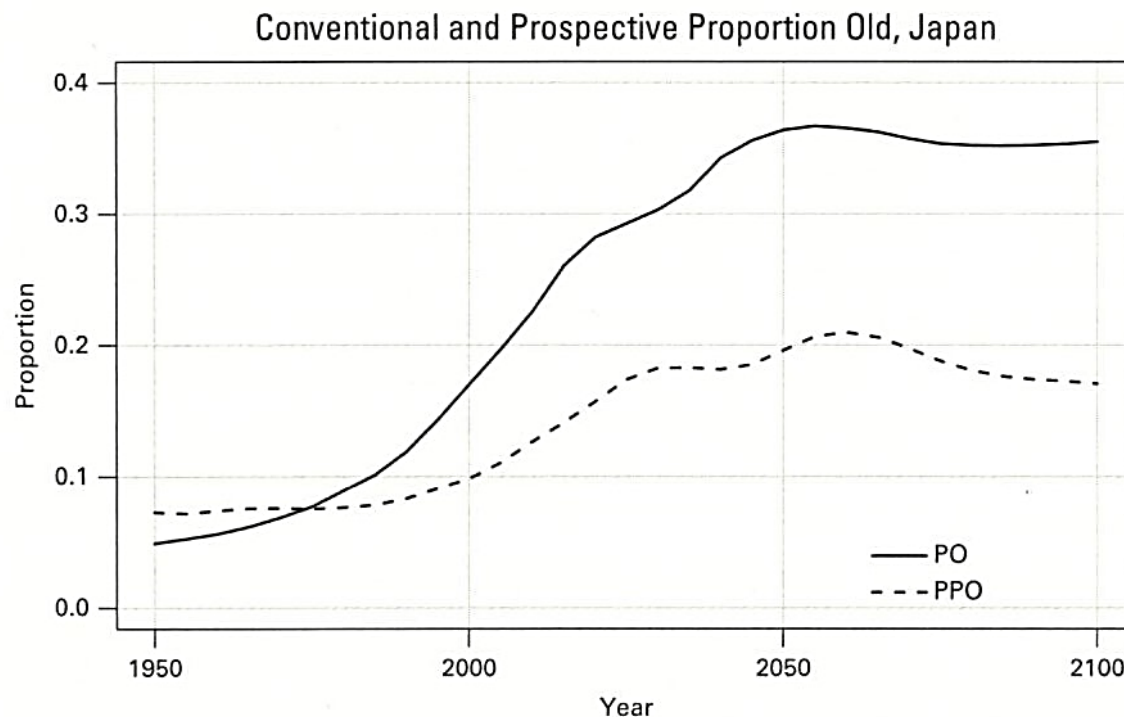


FIGURE 4.1B: Conventional and prospective proportion old, Japan. Life tables for 5-year intervals are assumed to be close approximations to life tables at the midpoints of the 5-year intervals. Populations are interpolated to the midpoints of 5-year intervals. The proportion old (PO) and the prospective proportion old (PPO) are the same in the year when remaining life expectancy at age 65 is 15 years.

Data sources: United Nations (2017c); authors' calculations.

# 대안적 지표와 전통적 지표의 비교 (Sanderson and Scherbov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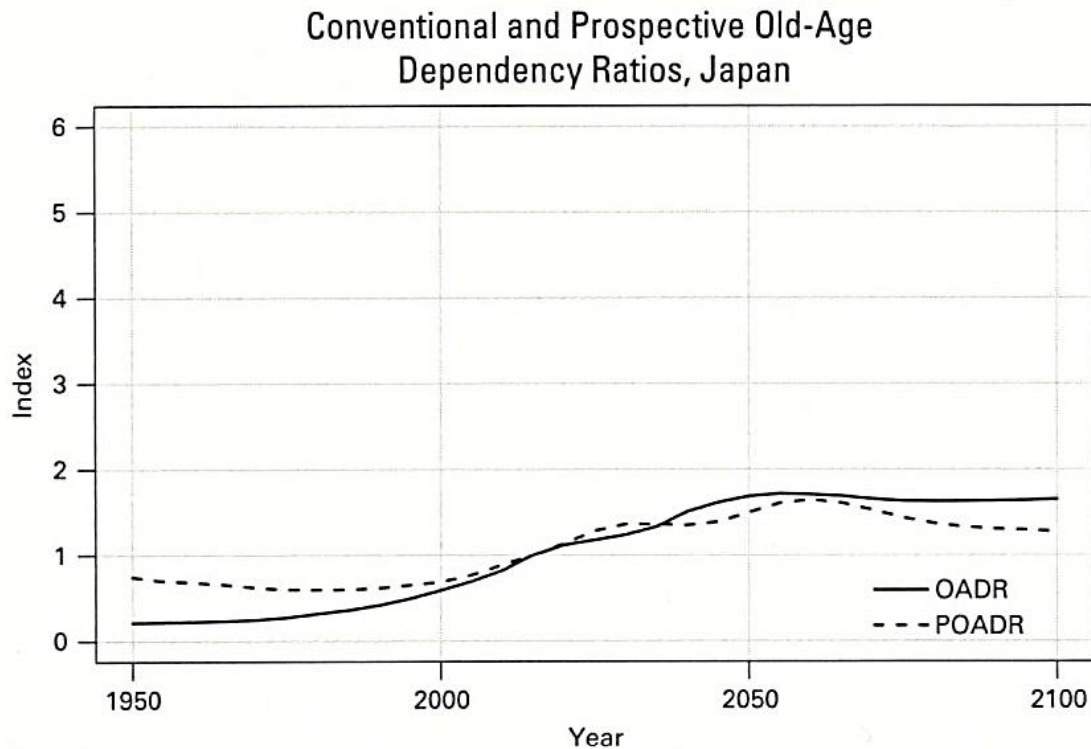


FIGURE 4.2B: Old-age dependency ratio (OADR) and prospective old-age dependency ratio (POADR), Japan. The conventional and the prospective old-age dependency ratios are both set to 1 in 2015.

Data sources: United Nations (2017c); authors' calc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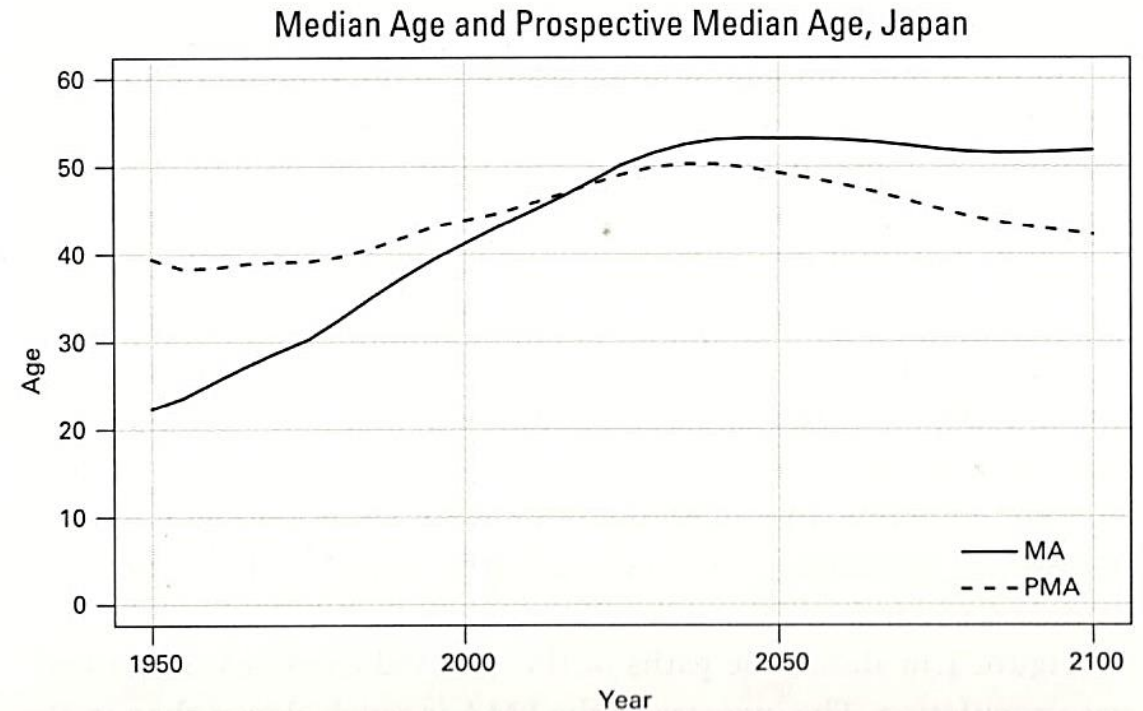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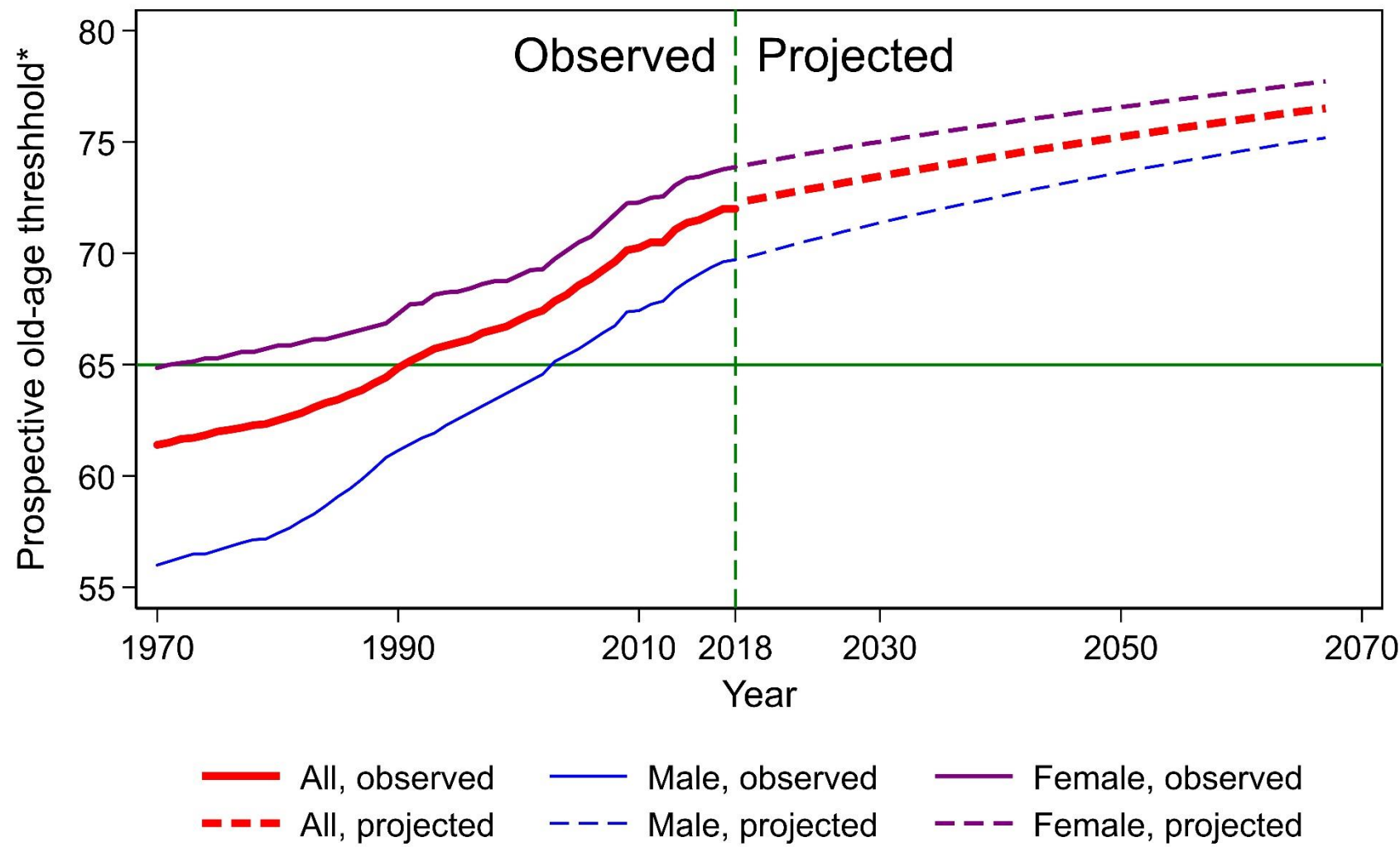


FIGURE 4.3B: Median ages (MAs) and the prospective median ages (PMAs), Japan. The PMA is computed as the prospective age of people at the MA of the population. The computation of the PMA uses Japan in 2010–2015 (both sexes) as the standard.

Data sources: United Nations (2017c); authors' calc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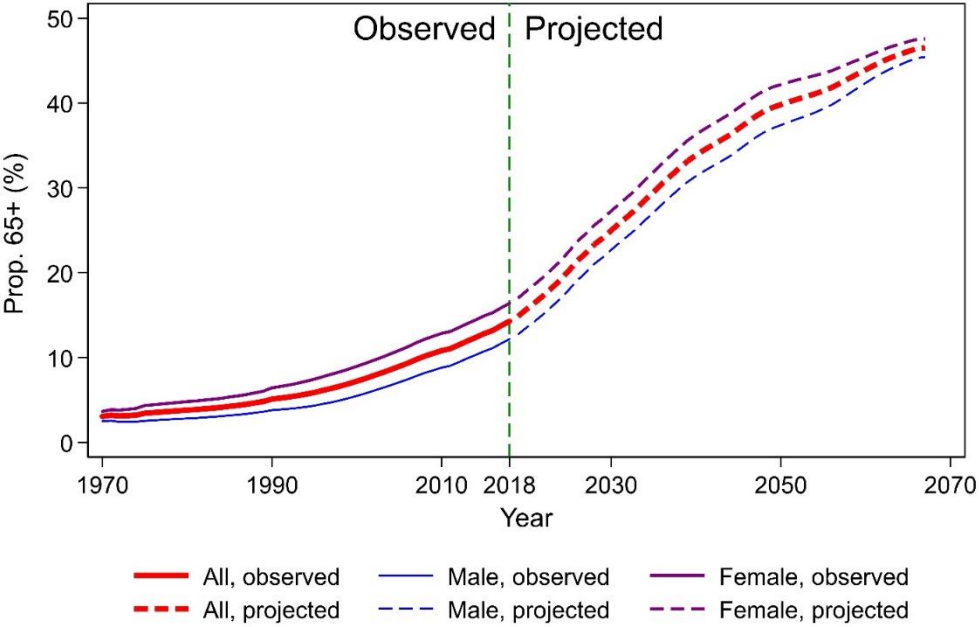
# 분석결과: 기대여명이 15년인 연령 (1970 – 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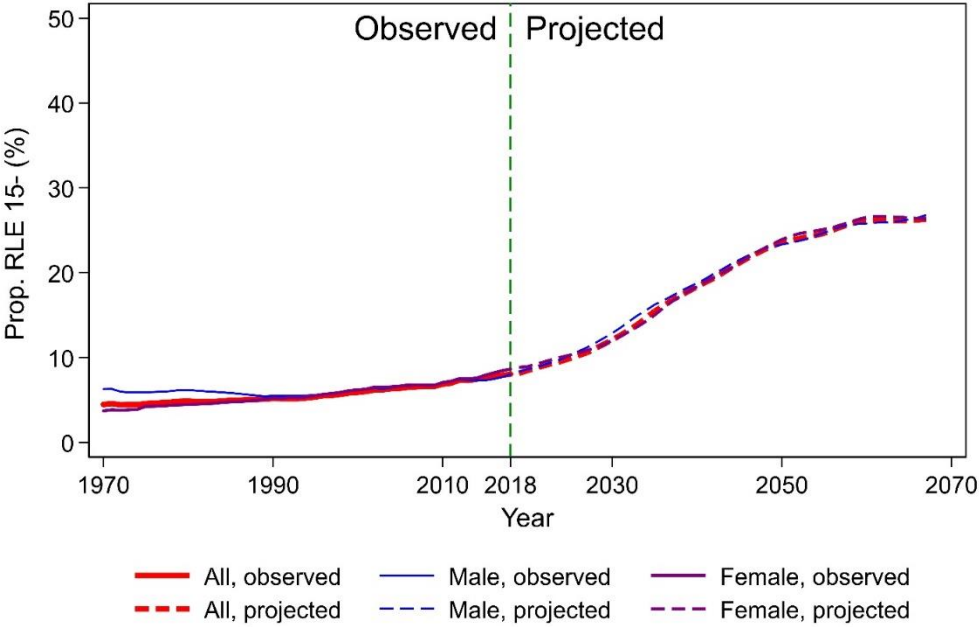
\*Age at remaining life expectancy equal 15

# 분석결과: PO vs. P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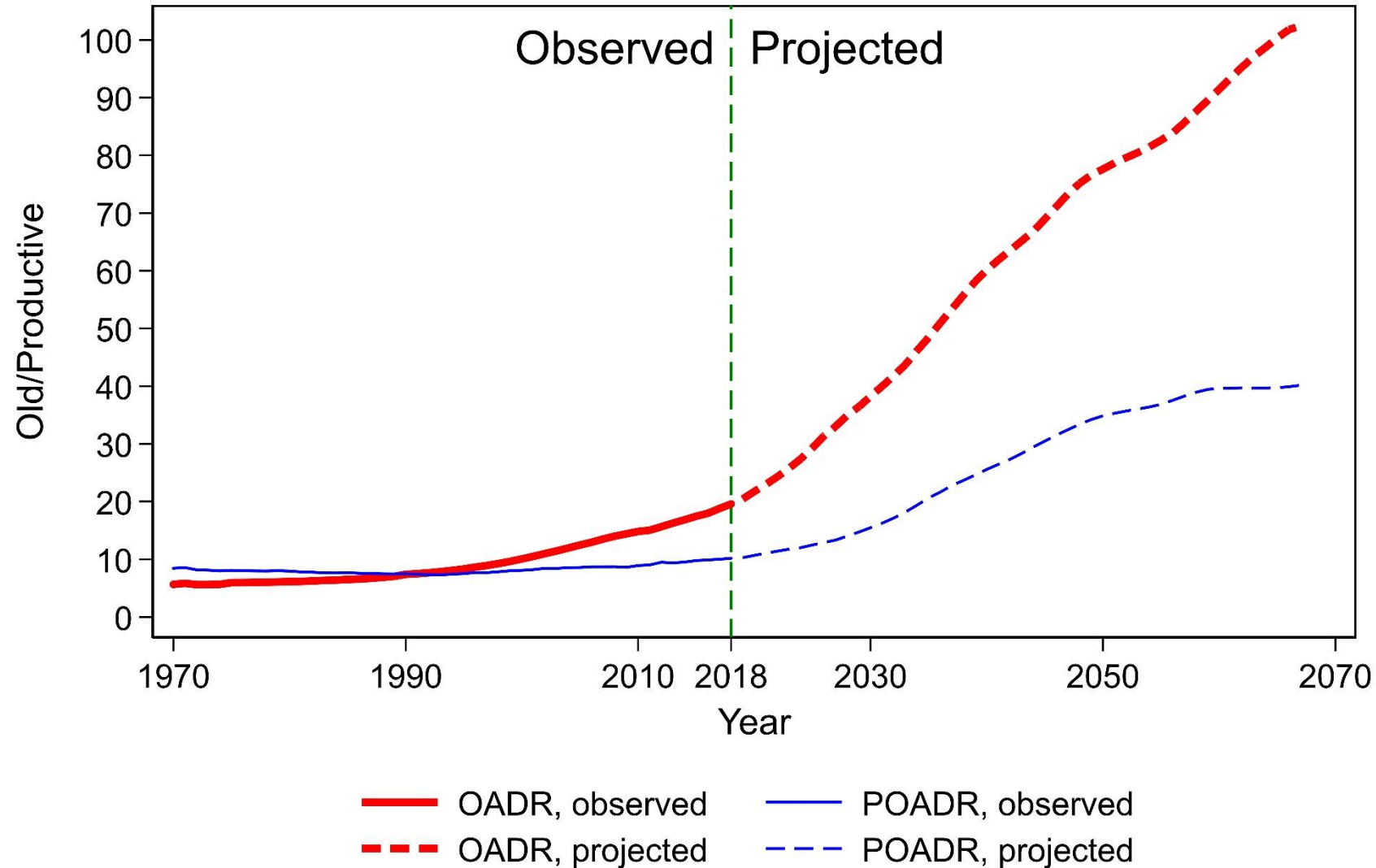
Proportion Old (PO)



Prospective Proportion Old (PPO)



## 고령인구 부양비 (OADR vs. POADR)



결과 요약

연대기적 연령 기반			
항목	1970	2065	비
노인비율	3.1	46.1	14.9
고령인구부양비	5.7	100.4	17.6
생애과정비	16.9	35.9	2.1
중위연령	18.0	62.0	3.4

장래연령 기반			
항목	1970	2065	비
노인비율	4.5	26.2	5.8
고령인구부양비	8.4	39.7	4.7
생애과정비	21.9	20.2	0.9
중위연령	18.0	42.5	2.4

\* 기대여명 15년인 연령: 61.4세 (1970년), 76.4세 (2065년)

# 장래연령 기준 적용의 정책적 함의

## ○ 질적 균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인구고령화를 양적 균형의 문제와 동일시하면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매우 어려움.
- 출산율 상승뿐만 아니라 건강수준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방향 설정의 필요성

## ○ 노인 기준연령 조정?

- 1990년 이후 RLE 15는 65세를 넘어섬.
- 노인 기준연령 조정과 관련된 논의는 불가피함.
- 높은 노인빈곤율, 실질적으로 이른 은퇴연령,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진정한 “제3의 연령(Third Age)”를 가능하게 할 사회적 조건 조성 필요



# 인구변화와 세대 간 갈등

# 노인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화

- 권위와 존경 vs. 경멸 (연령주의, ageism)
- 역사적 변화 (Troyanski 2014)
  - 현명함 (Prudence), 덕성 (Virtue), 인정 많음 (Indulgence): 훌륭한 조부모?
  - 쓸모없음 (Obsolescence)
  -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됨 (Bourdelaïs 1998)
- 죽음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 수명의 증가: 활동적 생애기간의 연장 vs. 의존과 배제의 기간의 연장 (Johnson 1998)
  - 폭력 및 죽음의 배제로서의 “문명화 과정 (Civilization)”
  - 수명의 연장은 역설적이지만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강화로 연결 (엘리아스 2012)

# 인구고령화와 관련된 인식의 역사적 변화

- 국력의 쇠퇴? (20세기 초반)
  - 19세기말 – 20세기 초반: 프랑스의 출산력 저하와 국력 쇠퇴 (Teitelbaum and Winter 1985; Troyanski 2014; Van Bavel 2010)
  - 우생학적 관점: dysgenic process, race suicide, yellow peril
- 학술적 연구: 제3의 연령 (Third age) (Laslett 1989; 1995)
  - 유년기, 성인기를 지난 시기 중 (자녀세대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애기간
  - 이환기 압축, 생존곡선의 직사각형화
  -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의 기반

# 한국의 연령주의 (Ageism)

## ○ 연령주의 (김주현 2012)

- 나이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형화하고 차별화하는 과정
- 연령주의에 기초해서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관념이 강화되고 이것이 노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현상이 발견됨.

## ○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 (김주현 2015)

- 나이 듦에 대한 인식
- 역할과 관계의 변화를 실감
- 생활양식과 생각의 차이
- 무시와 배제
- 차별 경험 및 반응
- 노년기 인식의 재구성

#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 (김주현 2015)

<표 2> 인터뷰 결과 도출된 범주 구분 및 노드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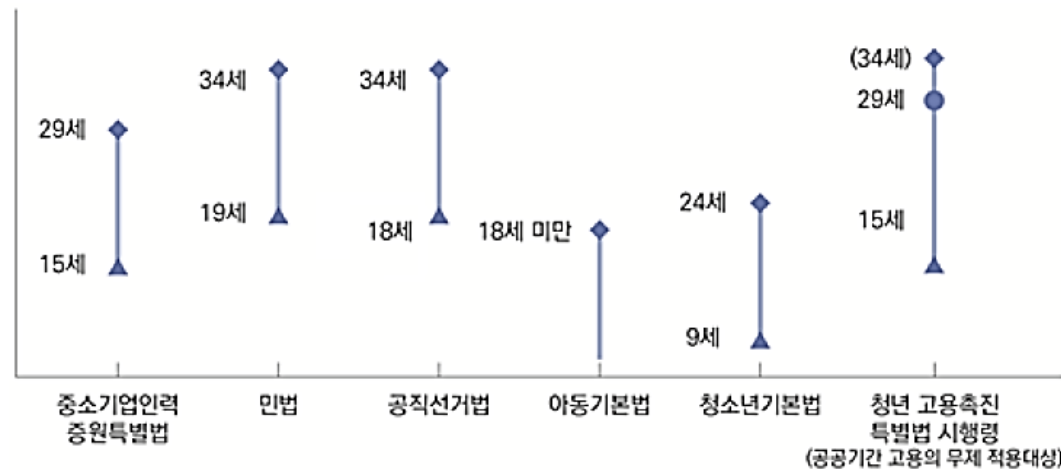
중심주제 (노드수)	범주 (노드수)	하위 개념들
다양한 무시와 배제 (116)	노인 편견 (9)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 할일 없이 나다니는 노인, 노인은 나이만 먹은 사람, 나이부터 따지는 세상
	노인기피 (16)	끼리끼리 모여요, 젊은이와 늙은이는 달라 노인네 냄새난다고 피해, 젊은이들은 자꾸 물어보면 싫어해
	일상생활에서의 노인무시 (34)	내 말을 알아들으려고 안해, 노인은 모른다고 설명을 안해줘, 노인의 말을 건성으로 들어, 늙었다고 쳐다보는 눈빛이 싫어, 상대를 안해줘, 동작이 느려서 복지사들이 짜증내,
	일자리에서의 차별 (18)	노인네는 가만 있으라 그래, 불리한 조건, 연령의 장벽, 일하려면 염색이라도 하고 오세요 나이 많다고 구박, 나이 많아 쓸모가 없다고 생트집
	자녀로부터의 무시와 소외 (16)	애들이 말을 쏘아붙여서 설움이 쌓여, 부모가 늙었다고 타박, 엄마는 몰라도 돼요, 집에 있어요. 우리끼리 다녀올게, 자식이 대답을 잘 안해줘.
	소통의 부재 (23)	나이드니 자녀와의 대화가 적어져 서운해, 정이 사라진 형식적 관계, 의사소통이 어려움, 최소한의 연락, 소원함
차별 경험에의 반응과 대응 (97)	소극적 대응 -무반응, 체념, 슬픔 (25)	싫은 내색 못하지, 노인들이 뭘 힘이 있다고, 슬프지만 할 수 없지 내가 뭘 어찌겠어, 노인들이 해봐야 뭘 하겠나
	분노와 이의제기 (6)	나이 많다고 거절당했을 때 눈물이 남, 적극적 의견제시, 강하게 이의제기, 화가 나지
	자녀와 거리두기 (14)	내 것은 챙기고 자식에게 나눠줘야, 불편할까봐 안가 의도적 정기적 만남, 자식에게 부담 주기싫어
	세대조화 - 이해와 교류를 위한 노력 (52)	일터에서 젊은이들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역할 찾기 - 일손이 필요하다니까, 적극적 활동 참여, 긍정적 사고로 적응하면 소외극복,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 변화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들에게 배울 건 배우고, 젊은 세대와 교류하려 노력

# 청년 이행기 (변금선 2021)

## ○ 청년기의 특성과 변화

- 성인이행기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인이행의 지연
- 세대 간, 세대 내 계층이동 사다리: 사다리의 단절?
- 새로운 가족의 형성: 가족형성 기회의 제약
-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증가

## ○ 다양한 인식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청년관련 법률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검색일 2019년 11월 30일.

\* 출처 : 변금선 외(2019).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방안 연구' 그림 II-2 발췌

그림 3 청년 관련 법률 연령 범위 규정

## 청년 이행기 (변금선 2021)




### ○ 탈산업사회에서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 교육-노동-독립/결혼-출산의 연쇄
- 연쇄의 약화 및 순서의 섞임.
- 선택적 과업의 수행. 시점의 다양화. 이행의 지연
- 이행의 중첩성의 증가 (예: 교육과 노동, 비출산 등)

### ○ 과업의 지연

청년기 과업	과거	현재
대졸자 학업기간	46개월('07)	51개월('20)
첫 취업 소요기간	9개월('05)	10개월('20)
졸업 후 취업경험 없음	8.3%('05)	15.0%('20)
초혼 연령	여성 28.7세('09)	30.6세('19)
반드시 결혼해야 함	20대 16.2%('08)	8.1%('20)
첫 자녀 출산 연령	26.4세('95)	31.9세('18)
첫 주택 구입 연령	40.9세('08)	43.3세('18)
자녀독립이 어려워 60세 이상 부모 동거	24.8%('08)	31.9%('19)

## 연금개혁과 정치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2007년 수령연령 늦춰	2012년 사회당에 패배
선거 패배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2003년 수령연령 연장 등	2005년 총선 패배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2004년 보험료· 소비세 인상, 기초연금 국고지원	2004년 참의원 선거 패배
정치 성공	 캐나다	폴 마틴 재무장관	1997년 보험료 인상, 기금체계 개선	2003년 폴 마틴 총리가 됨
선거 미이용	 스웨덴	1994년 5개 주요정당 합의 후 개혁 성공		
탈정치 협약	 스페인	1995년 톨레도협약		

### 스페인의 톨레도협약

1995년 의회가 연금이슈를 선거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협정

- 정권 교체 후에도 유지
- 2018, 2021년 개혁에 협정 원칙 유지

The JoongAng



# 노인 기준연령 조정의 정치학

*Population Studies*, 2020

<https://doi.org/10.1080/00324728.2020.1841270>



## The politics of ageing and retirement: Evidence from Swiss referen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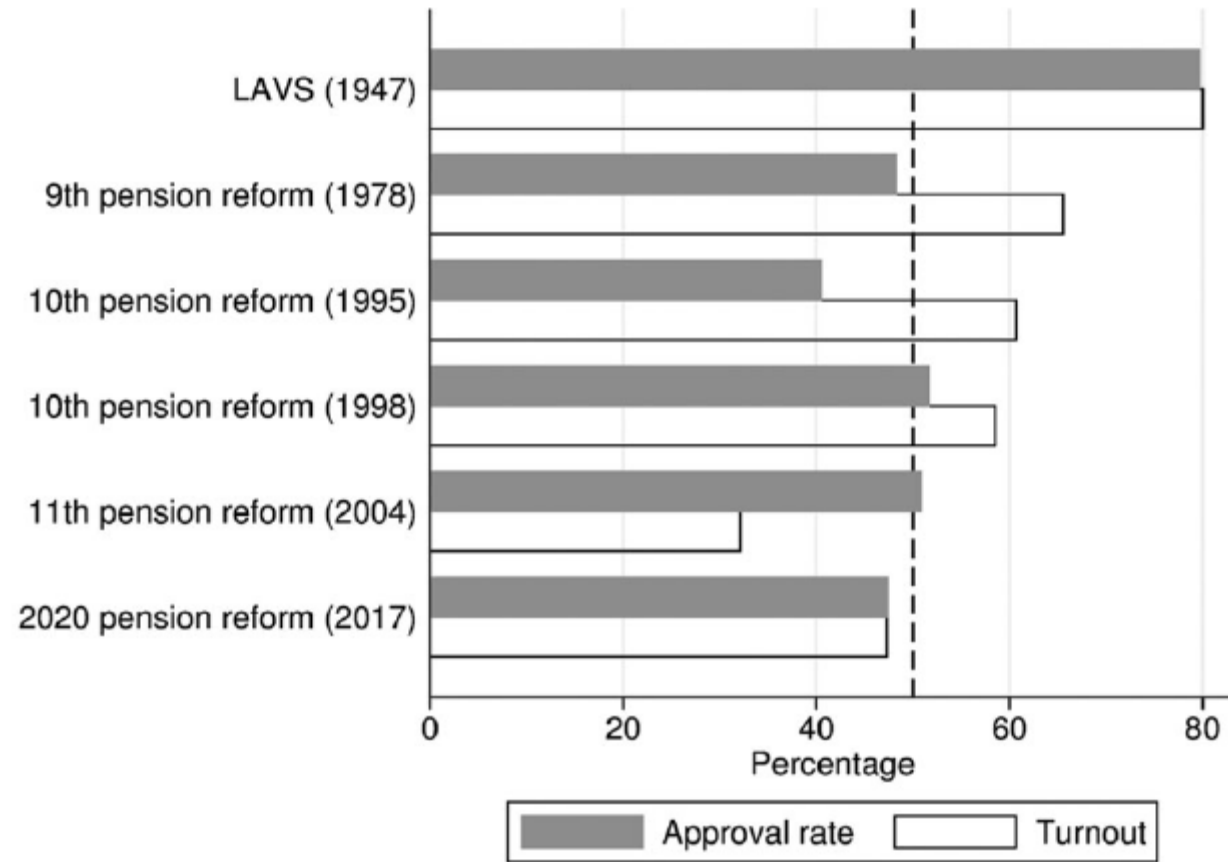
Piera Bello <sup>1</sup> and Vincenzo Galasso <sup>2</sup>

<sup>1</sup>Università della Svizzera italiana, <sup>2</sup>Università Bocconi

*Ageing threaten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ay-as-you-go pension systems, since it increases the share of retirees to workers. An often-advocated policy response is to increase retirement age. Ironically, however, the political support for this policy may actually be hindered by population ageing. Using Swiss administrative voting data at municipal level from pension reform referenda (and individual survey data), we show in fact that individuals close to retirement tend to oppose policies that postpone retirement, whereas younger and older individuals are more favourable. The current process of population ageing and the associated increase in the size of the cohort of individuals close to retirement may partially explain why a pension reform that increased retirement age for women was approved in two referenda in 1995 and 1998, while a reform that proposed a similar increase in women's retirement age was defeated in a 2017 referend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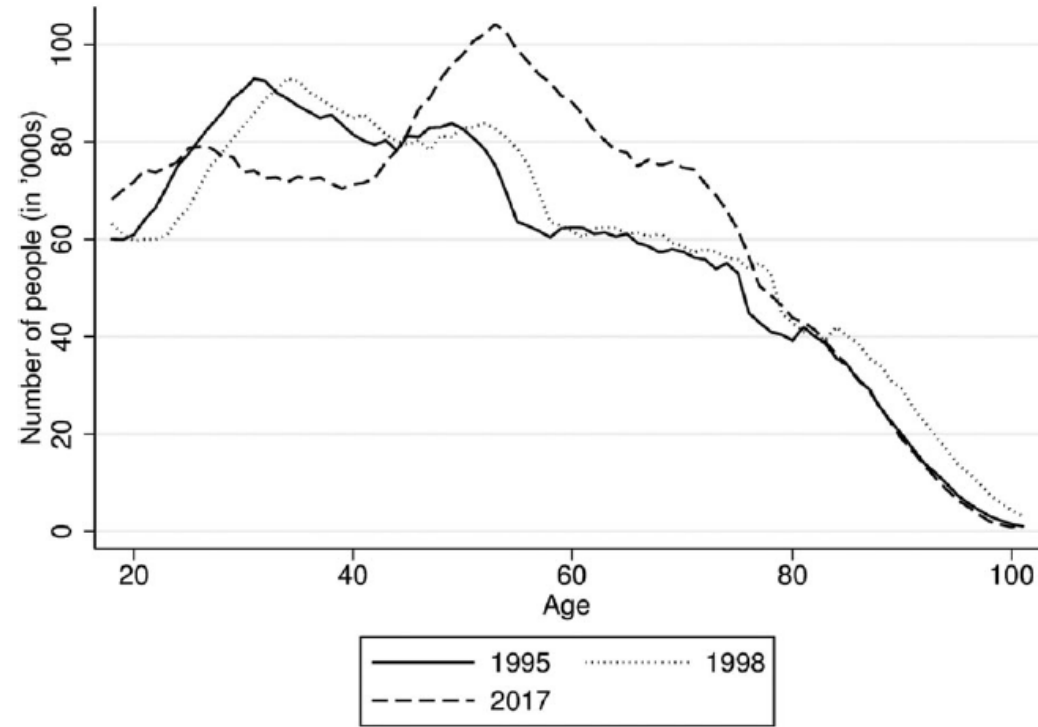
**Keywords:** social security reforms; voting behaviour; retirement age; population ageing; individual preferences; direct democracy

# 노인 기준연령 조정의 정치학



**Figure 2** Approval rate for LAVS and its reforms in six Swiss referenda

# 노인 기준연령 조정의 정치학



**Figure 3** Population distribution of adult citizens by age, Switzerland, 1995, 1998, and 2017

*Notes:* Number of Swiss citizens by age. Age  $x$  in 1995 (1998) corresponds to age  $x-5$  ( $x-8$ ) in the 1990 Census, while age  $x$  in 2017 corresponds to age  $x-1$  in the 2016 Census.

*Source:* Data are from the 1990 and 2016 Swiss Censuses.

# 노인 기준연령 변경의 딜레마

## ○ 정년연장

-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의 격화?
- 청년층의 저항?

## ○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조정

- 연금 재정 안정화
- 정년연장 없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조정?
- 공적 이전 **vs.** 사적 이전

## ○ 인구학적 조건: 기대수명의 향상

- 정년/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의 필요성
- 정치적 조건: 청년층 및 노년층의 반발 (Bello & Galasso 2020)
- 탈출구는?

# 노년기의 다양성/이질성

- 연령에 따른 생애과정 구분은 시대를 초월해서 보편적 현상임.
  - 노년기의 정의는 50 ~ 70대로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팻 테인 2012)
  - 고독한 노인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줄었다! (자식의 생존확률 변화)
- 노년기의 불평등
  - 기대수명의 향상 등을 통해서 보면 노년기의 생활조건 및 건강수준은 ‘평균적으로’ 향상되어 왔음.
  - 한편, 노년기는 생애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자원불평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임. 노인인구의 증가와 소득불평등의 증가 관계.
  - 노인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와의 동거 가능성의 관계 (황선재/임훈민 2020)
  - 소준철. 2020. <가난의 문법>: 노인들의 “재활용품 수집 노동”.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노동. 진정한 의미의 “제3의 연령”?
  - 청년층의 이질성은? (이철승 2019; 김창환/김태호 2020)